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들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양: 200자 원고지 4~6매
◇발행처: 서울·수원(본사편집실)

망국적인 한소회담을 반대한다

북한 고립 심화될 가능성 커

31년전 온국민의 분노와 항거가 활화산처럼 분출되었던 4·19 혁명의 거센 함성이 세 사라지지 못한 지금, 우리의 조국은 또다시 통일과 분열, 민주와 반민주의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다.

6·29선언으로 민주화를 외치며 보통사람의 시대를 열었던 노태우정권이 민주화의 길을 포기하고 탄압의 국면을 진행한지도 이미 오래이다. 작년 '법외의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전민련, 범민련의 핵심간부를 구속하고 각종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령만을 강화하면서, 민생지원은 뒷전에 밀려 각종범죄가 국민을 괴롭히는 현실이다. 수서비리를 은폐하는 속에서 국민에게 자자제를 통한 민주화에 대한 환상을 우호하고, 판관력과 금권력을 총 동원하여 온국민이 파멸로 향하는 지자제의 씨앗을 뿌려버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노태우 정권은 국민들의 원성과 신음은 아랑곳 않고 우리민족을 영원히 갈라놓을 'UN 단독가입'을 추진하고로 망국적인 고르비와 회담을 추진하려 한다. 매년 정권이 위기에 몰릴때마다 군사독재 정권들은 최후의 보루로 반공·반북의식을 고조시켜 왔다. 즉, 이방인 민중들에 의한 완전한 평화통일이 될 경우 그들의 마지막 근거지는 사라지는 것이다. 각종 물가인상과 민생치안의 부재, 정치개혁의 부재로써 속속이 땅바닥에 떨어진 정권의 인기를 수습하고자 공산국가에 우호적으로 자처하는 고르비와의 회담을 성사시켜 그 만화를 피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반도를 영구히 분단화 시키는 속에서 자신의 정권을 지속하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망국적인 한·소회담을 온몸으로 거부한다. 더구나 요즘의 국내의 정세는 한반도에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걸프전에서 자신감을 얻은 미국의 노골적인 대 한반도 발언 - 2000년대 까지 주한미군 주둔,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반대, 120일 전쟁 시나리오 - 들은 어느 때보다도 전율이 감도는 한반도를 더욱 위태롭게 하고있다. 이렇게 절박한 순간 소련은 자신의 경제적 사정만을 안중에 두고 우리 민족에게 영원히 맺을수없는 분열의 장벽인 'UN단독가입'문제를 논하려 한다.

"우리는 건방지지 않다"

사회인들 편견의 안정 벗겨야

대학에 입학한지 한달 반쯤 되던 어느 날 교내신문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한 누나 나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

"회개야 내가 고3때나 재수할 때에는 참 깨끗하고 순수해 보였는데 지금은 뭐라고 할까, 퇴폐적으로 변했다고나 할까? 참 안타깝다"

"퇴폐적이라니? 아예 그랬다고 내가?"

"그게 아니고 네 분위기가 웬지 탁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이야"

대학생이라고 하면, 매일 데모하고 야한 이야기하고 술먹고 담배피고 당구치고 미팅하고 동등 사회인들이(물론 대부분은 아니지만) 대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결코, 폄하만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요즘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보면 대학생들은 '매우 버릇없고 위

협력과 이해의 매개체

-본교 체육부를 소개하며

사람은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상호의존의 존재'로서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살수없게 되어있다. 때문에 세상에 태어날때부터 많은 인간과 접촉하게된다. 즉 가족 집단에서 출발하여 유희집단→이웃집단→학교집단→직업집단으로 발전하게된다. 사람의 성장과정을 보게되면 가족·외부의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것은 '유희'에서 비롯된다. 물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유희'는 단순한 놀이와는 구별되는 생활활동과 연관된 구체적이고 총체적 활동을 의미한다. 우리 경희 학생들도 유희의 한 방안으로서 체육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실제로 각단대별 운동동아리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의대축구부, 한의대 야구부, 동아리 연합회의 체육분과등이다. 그외에도 학생들이 끼리의 축구·농구·테니스·주식시합을 하는것을 운동장을 비롯한 캠퍼스 곳곳에서 쉽게볼수있다. 바람직한 유희의 한방법이라 생각된다.

알마전 우연히 한학생을 만나 얘기를 나누던중 우리 경희의 운동부인 야구부얘기를 듣게 되었다.

요즘은 대중매체의 발달로 쉽게 여러경기의 소식을 접할수 있으므로 어느정도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프로야구 수습하는 누구누구가 있으며 프로축구 무수팀에는 누구누구가 있다는것은 일것이다. 하지만 우리학교 운동부에는 무수부가 있는가 학교에서 내려 걸어들아오는 길에는 아침공기가 신선했다. 어느 새 잔디가 돋고 개나리, 진달래가 피었다. 입학한 지 두어달이 지났는데, 매일 변해가는 이곳 수원 캠퍼스의 모습은 다채로워졌다.

신생이 난동 부과 장구를 치는 학우의 흥겨운 가락에 내 어깨까지 들쭉거리는 것은, 건넌채로 나눠져 주구를 하고 배드민턴을 함치 치는 친구들에게서 눈길 떨어지지 않는 것은, 계절의 변화에 나도 동참하고 싶어서였을까? 동그란게 모여앉아 손뼉을 치며 노는 단합대회에서 소속감을 느낀다. 건반리듬에 맞춰 흘러나오는 노래에 귀를 기울인다. 기타소리에 맞추어 가사가 춤춘다. 친구들의 웃음에서 삶의 싱싱함이 느껴진다. 이것이 햇살이 따듯해지는 교정에서 불쑥나는 젊음이다.

그 곳에서 나는 현실에 대해 들어보기도 하고, 선배나 친구들과 열띤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故 이수병 열사의 주모제'에 참가해 일숙하게 고인에게 묵념도 드렸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느 학생이나 제각기 자기 할 일에 열중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은 이곳에서 발견해 온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등 뒤로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가 학교를 대표해서 뛰고있는 사람들이 어떤 학생인가를 아는 학우들은 과연 몇몇이나 될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됐다.

각대학마다 운동부는 거의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우리 학우들의 많은 관심과 시합 때의 학우들의 열렬한 응원도 우리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주는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체육부에서도 운동부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학우들을 위해서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및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확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나 더 체육에 대해 학우들에게 한마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체육활동에는 그 나름대로의 사회가 구성되어 리더와 폴로워(follower)가 생기고 주중의 연관을 이루게된다. 여기에서 협력과 조력·실력과 이해를 배우고 대립과 타협을 체득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환경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수정 발전시켜 사회생활에서의 인간관계를 원활히 하고 생산적 사회로 꾸며가는 지력을 키우게 된다. 체육이란 원래 경쟁과 협력의 기회를 주며 그 속에서 복잡한 인간관계를 갖게하고 공동목표를 위하여 노력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협조와 신의의 경쟁으로 인간관계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의도적 작업이다. 체육에서의 경쟁은 단적인 대결이 아니라 합리적인 경쟁이요 협력적 대치 이므로 상대는 적이 아니라 더불어(with)행동하는 '우리'라는 개념속의 구성원이다. 여기에서 그들은 협력·책임·사교·예의등을 몸에 익히고 발전시켜 주중의 질서와 규칙의준엄·약속의 이행·시간엄수같은 덕성을 함양하며, 주고받는 상호협력은 물론 동정·자애·관용의 태도를 배우게된다.

나 성 민 (별문-1)

천 병 옥 (체육-3)

21세기를 향한 민주화 역정

4월 주제 '혁 명'

혁명의 당위성은 막혀 있는 것을 뚫어서 일시에 통하게 하는데 있을 것이다. 대학주보가 새삼 '혁명'을 자리고 이처럼 재문·삼문을 하게 하는 까닭도 요컨대 4·19혁명이 아직도 떨 뚫린데가 많기 때문이었다. 30여년 전의 4·19혁명도 많은 곡절을 겪으면서도 바람직한 결실을 맺는 장래에 기대되어 왔던 것이고 민주화의 역정은 본래 길고 어려운 것임을 우리는 작금의 세계 실상에서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제 21세기를 맞은 앞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 그 완수를 기할 것인가. 이는 당면한 가장 중요하고 뜻깊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나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먼저 이제의 자기를 이기는 국가혁명을 앞세워야 하며 거기에는 당장 초기 심심건장 운동과 전통전공부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 몇년만에 우리

서 치솟는 민주와 바람으로 많은 개혁과 진전이 있어왔다. 그런데도 정치의 공명이나 경제정의의 실현, 그리고 지성사회의 문화풍조성 등은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왜들 이런 것을 잡는 각고의 노력없이 피차가 현상에만 매달려 투쟁과 대응을 되풀이 한데 매정인 것은

이제 21세기를 맞은 앞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 그 완수를 기할 것인가. 이는 당면한 가장 중요하고 뜻깊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나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먼저 이제의 자기를 이기는 국가혁명을 앞세워야 하며 거기에는 당장 초기 심심건장 운동과 전통전공부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 몇년만에 우리

서 치솟는 민주와 바람으로 많은 개혁과 진전이 있어왔다. 그런데도 정치의 공명이나 경제정의의 실현, 그리고 지성사회의 문화풍조성 등은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왜들 이런 것을 잡는 각고의 노력없이 피차가 현상에만 매달려 투쟁과 대응을 되풀이 한데 매정인 것은

이제 21세기를 맞은 앞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 그 완수를 기할 것인가. 이는 당면한 가장 중요하고 뜻깊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나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먼저 이제의 자기를 이기는 국가혁명을 앞세워야 하며 거기에는 당장 초기 심심건장 운동과 전통전공부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 몇년만에 우리

서 치솟는 민주와 바람으로 많은 개혁과 진전이 있어왔다. 그런데도 정치의 공명이나 경제정의의 실현, 그리고 지성사회의 문화풍조성 등은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왜들 이런 것을 잡는 각고의 노력없이 피차가 현상에만 매달려 투쟁과 대응을 되풀이 한데 매정인 것은

“우리는 건방지지 않다”

사회인들 편견의 안정 벗겨야

대학에 입학한지 한달 반쯤 되던 어느 날 교내신문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한 누나 나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

"회개야 내가 고3때나 재수할 때에는 참 깨끗하고 순수해 보였는데 지금은 뭐라고 할까, 퇴폐적으로 변했다고나 할까? 참 안타깝다"

"퇴폐적이라니? 아예 그랬다고 내가?"

"그게 아니고 네 분위기가 웬지 탁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이야"

대학생이라고 하면, 매일 데모하고 야한 이야기하고 술먹고 담배피고 당구치고 미팅하고 동등 사회인들이(물론 대부분은 아니지만) 대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결코, 폄하만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요즘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보면 대학생들은 '매우 버릇없고 위

전투경찰 체험수기

(유인철 고백)

1985년 군입대후, 제1기 전쟁 사복 부대 정보C요원으로 차출되어, 암호명-B, 295, 물뿔?을 부여받고 학원 및 종교계 프락치 활동을 전담한 핵심 요원이며 최초의 백골단(사복체조) 교육담당이었던 저자가 '우리의 비밀이야기' 무덤까지 가져가라'는 약속(?) 때문에 수많은 방황....., 오랜 침묵....., 끝에 양심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백골단 요원으로 최초로 고백하는 학원, 종교계, 프락치 활동의 진상, 백골단의 임무와 그 실체!

●인전 선인학원사태-역사가 되고 싶은 그대들이여...
●5.3 인전사태와 최초의 백골단 출현-뜻기는 군중, 출현된 민주화-
●(밀명)-음복복제에 참여하라-〈전남대〉
●한신대 실력이 최고고
●마지막 날에-『돌아와서』
●백골단 (전역) - 그후의 생활

전 3권 신국판 276쪽 값 3,800원
전국 총판모집

도서 출판 영재

전화: 857-7476, 858-6297
FAX: 858-6297

전국대학(원)생 현상논문 공모

한국산업은행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3회 현상논문모집을 실시합니다.

저 현상은 창립이후 수행해 온 선진적인 산업금융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선진 경제구조를 지원하는 장기산업금융기관으로서, 새로운 금융기능을 창조하는 투자자로서, 그리고 세계금융시장으로 뻗어 가는 국제은행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현상논문 모집은 학생들의 현실감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연구의욕을 고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2000년대의 주역이 될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논문제출: 다음종 목별

- 금융시장 개편과 은행의 대응전략
-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방향
-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현황과 과제
- 90년대 첨단산업 전진과 육성전략
-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에 위한 산업정책방향
- 경제환경 변화와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 기업가정신에 경제발전에는 미치는 영향

※ 위 논제와 관련된 부제를 선정, 관심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작성하여도 무방함

■ 상금 및 시상

- 상금: 최우수작(1인): 300만원과 상패
우수작(2인): 각 100만원과 상패
佳作(10인): 각 50만원과 상패
- 응모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
- 시상: 시상식일과 장소는 추후 개별통보

■ 유의사항

- 1) 논문제출시 연락처를 명기하고 재학증명서 1부 첨부할 것
- 2) 당선작의 저작권은 당행 소유이며 당선작 및 당선작에 제출한 유사논문은 심사서에서 제외됨
- 3) 접수된 논문은 반환되지 않음
- 4) 기타사항은 조사회 현상논문담당자에게 문의바람(전화 733-2121, 2122)

한국산업은행의 꿈과 의지
한국산업은행

외국어특강

개강→5월 1일

특혜
Korea Herald 사설, Time, Digest
영문해석등 철저한 분석독해

회화
Practical English, Side by Side
American Stream-Line
민병철생활영어, 미국인 회화

영작, 어휘력, 청취력
기본영작문연구, Vocabulary 22,000
Movie English TOEFL L/C 및
미국어 Hearing, AFKN

TOEFL
아카데미 TOEFL TOEFL L/C

종합영어(입문→고급)
미국식교과서영어→기초영어완성→영어
실력기초→성문기본영어→성문종합영어

동시통역대학원 입시반
외대통역대학원 입학에 위한 1월
4시간 집중코스

영어
일본회화/박성원(입문→고급) SCREEN
회화, NHK필름/동경일본어/비즈니스영어

제2외국어, 불, 중, 서반어 특강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옆 757-0419

百萬社 266-8334
서울 중로6가 267

The Korea Herald

日刊紙

신문구독신청 ☎ 778-4388, 778-0834

외국어특강

개강→5월 1일

특혜
Korea Herald 사설, Time, Digest
영문해석등 철저한 분석독해

회화
Practical English, Side by Side
American Stream-Line
민병철생활영어, 미국인 회화

영작, 어휘력, 청취력
기본영작문연구, Vocabulary 22,000
Movie English TOEFL L/C 및
미국어 Hearing, AFKN

TOEFL
아카데미 TOEFL TOEFL L/C

종합영어(입문→고급)
미국식교과서영어→기초영어완성→영어
실력기초→성문기본영어→성문종합영어

동시통역대학원 입시반
외대통역대학원 입학에 위한 1월
4시간 집중코스

영어
일본회화/박성원(입문→고급) SCREEN
회화, NHK필름/동경일본어/비즈니스영어

제2외국어, 불, 중, 서반어 특강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옆 757-0419

百萬社 266-8334
서울 중로6가 267